전염병과 초대교회: 대처 모습과 그 동인

최혜영 전남대 교수

초록

고대 로마에도 여러 차례의 전염병이 일어났다. 그 가운데서도 3세기 중엽 전 로마 제국을 휩쓴 전염병은 기독교와 깊이 연관되어 나타났다. 이 전염병이 당시 카르타고의 주교 키프리아누스의 이름을 따서 '키프리아누스 질병'이라고 불리는 데서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전염병은 당시 크리스트 교도들에게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었는데, 전염병이 일어난 이유를 기독교도들에게 전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키프리아누스 전염병이 유행하였던 당시 데키우스 황제에 의하여 전 제국적인 극심한 박해가 일어났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전염병은 오히려 기독교의 확산을 도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면에는 초대 기독교인들의 전염병에 대한 대처 방식과 죽음에 대한 태도가 큰 몫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염병이 유행하자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서 친한 이들의 시신도 방치하든가, 아니면 순간의 향락주의에 빠져들었다면, 기독교도들은 이들과 정반대로 행하였다고 전해진다. 자신을 아끼지 않는 사랑과 헌신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병자를 돌보다가 자신도 질병에 감염되면 이 세상을 기쁘게 떠났던 것이다. 당시 기독교도들과 관련한 독특한 별명 가운데 죽음이나 전염병과 관련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많은데, biathanatai(죽고 싶어 안달인 사람들), parabalani(죽음 등의 위험을) 무릎 쓰는 사람들), philokindynoi(위험을 사랑하는 사람들), philoponoi(고된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 spoudaioi (열심인 사람들)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별명이 의미하듯이 기독교도들은 병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고된 일을 감내할 뿐만 아니라 고통을 사랑하며, 성실과 열정을 다해서 돌보았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기독교는 병자들에 대한 사회적 태도에 있어서 가장 혁명적이며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왔으며, 고대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새로운 시설이자 오늘날 개념의 병원도 탄생시켰다.

전염병의 창궐이라는 위급한 상황에서 초대 기독교도들로 하여금 죽음을 초월하여 선행을 하게 하였던 원동력 가운데 가장 중요하였던 것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더불어 죽음에 대한 관점, 즉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특히 초대 교회에서 뚜렷하게 보이는 부활관은 기독교도들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든 죽음에 초연한 태도를 가지게 하였으며, 이러한 모습은 특히 전염병의 대유행 시기에 더욱 빛났으며 사람들을 감동케 하여 교회가 성장해나가는 원동력이 되었다.

I. 들어가는 말

고대 로마의 공용어였던 라틴어와 그리스어에서 전염병을 가르키는 말로는 pestilentia, lues, loimos(λοιμός), epidemos(ἐπίδημον) 등이 있었다. 치명적 병을 뜻하는 pestilentia는 페스트의 어원이 되기도 하였으며, 민중이라는 뜻의 데모스가 들어간 epidemos, 혹은 pan-demos 등은 '모든 사람에게 유행한다'는 의미로 오늘날도 널리 쓰이고 있다. 전염병과 관련한 이상의 여러 단어들의 존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대 로마 시대에는 여러 차례 전염병이 일어났다. 그 가운데서도 3세기 중엽 데키우스 황제 치세로부터 전 로마 제국을 휩쓴 전염병은, 이 전염병이 당시 카르타고 주교 키프리아누스의 이름을 따서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고도 불리는 데서도 잘 알 수 있듯이, 기독교와 깊이 연관되어 나타났다. 키프리아누스는 '구토 및 설사 증세가 계속하여 온 몸의 힘이 빠지며, 골수에서 비롯된 발열 증세로 온몸 곳곳의 상처는 계속 곪아갔으며, 출혈 증세 가끔은 발이나 다른 신체 사지가 떨어져나가 걸을 수 없거나, 청력과 시력을 잃는다'고 기록하였다[1].

이러한 전염병은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었다.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듯이, 전염병이 일어난 것 역시 이들에게 전가하기 쉬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키프리아누스 전염병 유행 당시 데키우스 황제에 의한 전 제국적인 차원의 극심한 박해가 일어났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주교로 있던 디오니시우스는 '이교도들과 기독교도들이 같이 여러 재난을 당한 가운데, 기독교도들은 이에 더하여 이교도들이 가한 위해와 재난까지 당해야했다'고 증언하고 있다[2]. 전염병은 기독교도이든 아니든 모든 이들에게 닥쳤으며, 기독교도들에게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전염병의 유행은 오히려 기독교의 확산을 도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면에는 초대 기독교인들의 전염병에 대한 대처 방식과 죽음에 대한 태도가 큰 몫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3세기 중엽 초대 교회 시대에 일어났던 키프리아누스 전염병을 중심으로 고대 사회에서의 전염병이 야기한 사회 양상과 이에 대처한 기독교인의 모습, 죽음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Cyprianus, *De Mortalitate*, 14.

2) Eusebius, *Historia Ecclesiastica*, 7.22

II. 데키우스 황제 치세기의 전염병과 기독교

1. 전염병 당시의 상황

<키프리아누스 일대기>를 쓴 폰티우스는 3세기 당시 전염병 유행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무서운 전염병이 발생하여 그 놀라운 파괴력이 각 집마다 파고들어가서 각 집마다 한명씩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매일 갑자기 죽어갔다. 모두가 두려워 떨며 도망하여 전염되는 것을 피하려 하였다"[3] 전염병은 기근이나 전쟁과 함께 수반되는 경우가 태반이었으므로 더욱 큰 위협이 되게 마련이었다. 데키우스 황제 당시에도 북방에서의 게르만 족의 침입도 함께 일어났던 것이다. 이런 상황은 비슷하게 되풀이되어 다음 세기에 살았던 교회사가 에우세비오스도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전례 없는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했다. 또 전쟁에서 로마가 패하면서 이러한 재난은 가중되어, 기근과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든 시골에서든 죽어갔다, 한편으로는 물가가 너무 올라 양식을 사기 위해 재산을 다 팔고도 부족해 굶어 죽어간 사람들이 많았다. 거리에는 벌거벗은 시체들이 즐비하게 늘어져 있었으며, 개에게 뜯기기도 하였다[4].

재난의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국가적 차원의 전통적인 노력 가운데 당시 가장 두드러졌던 것은 '신들 달래기' 의식(supplicationes)이었다. 이는 로마 역사에 기록된 수많은 전염병의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역사가 리비우스는 공화정기 전염병의 유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를 피하려는 모든 인간적 노력이 허사가 되자 원로원 의원들은 신에게 탄원하도록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모든 신전이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전한다[5]. 또 다시 전염병이 발생하여 이듬해까지 계속되자 신들의 평화를 위해서 '렉티스테르니움lectisternium'[6]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그래도 전염병이 계속되자 "사람도 신들도 이를 막지 못하였으며, 사람들은 미신적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하늘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다른 민족의 '연극 공연'까지 도입하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다른 한편, 최고 국가 원수(딕타토르)를 새롭게 뽑아서

---

3) Pontius Carthage, *Vita et Passio Cypriani*, 9

4) Eusebius, *Historia Ecclesiastica*, 9.8

5) Livius, *ab Urbe Condita*, 3.7.6; 5.13.

6) lectisternium은 로마의 신들 달래기 제례로서 모두가 모이는 공적인 장소에 천을 두른 신들의 조각상을 의자에 앉히고 그 앞에 음식을 차린 탁자를 배설하는 의식으로 일주일 정도 계속되는 것이 상례로서, 전쟁이나 기근 같은 국가의 위기 시에 이루어졌다.

"못박는 의식"을 거행함으로써 전염병을 저지하려고도 하였다[7].

즉 이들은 전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에서 온갖 관습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신들을 달래는" 의식에 최선을 다했음을 알 수 있다[8]. 데키우스 황제 및 그의 측근에 있다가 제위에 오른 발렌티우스 황제 치세기는 전염병이 창궐하던 시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들 황제들 역시 "신들을 달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전 제국적인 기독교 박해 정책을 폈던 것으로 보인다[9]. 이 당시의 전염병은 이디오피아에서 북 아프리카, 이탈리아 등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 20년 정도나 계속되었으며, 정점을 찍었을 때는 로마에서만 하루에 오천 명이 죽었다고 전한다. 이와 함께 북쪽의 게르만 족이나 오리엔트 쪽에서의 변경 침입이 극성에 달하게 되자, 이들은 전통적 신들을 달래어 이런 사태를 진정시키고자 전통적 신들 혹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던 기독교인들에게 혹독한 박해를 가하였던 것이다[10].

데키우스 황제의 칙령으로 로마 제국민들은 이교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야하였으며, 그 사실을 확인해주는 증명서(libellus)를 소지하여야만 하였다. 이러한 칙령은 배교자나 순교자를 양산하기 마련이었다[11]. 당시의 대표적인 순교자로서는 로마 주교 식스투스와 여러

---

7) Livius, *ab Urbe Condita*, 7.1~3. '못박는 의식'을 통해서 재난을 물리치던 관행은 에트루리아인의 문화였으며, 그 뿌리는 오리엔트 지역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8) cf, Livy, *Ab Urbe Condita*, 22.10.8

9) 데키우스가 로마에서 시행하였던 일들이나 주조된 화폐를 보면 그가 로마의 전통을 회복시키려 힘을 쏟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트라야누스라는 성공적으로 통치하였던 전임 황제의 칭호를 부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데키우스 시대의 박해와 관련하여서 Rives는 데키우스 칙령이 꼭 기독교도를 겨냥해서 내린 것은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지만(J. B. Rives, "The Decree of Decius and the Religion of Empire", *The Journal of Roman Studies* 89 (1999), pp. 135-154), 유일신을 숭배하는 기독교도들에게 큰 문제가 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하였으므로 이러한 분석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여진다. 또 데키우스가 유일신을 믿던 유대교도들은 제신 숭배 의무에서 제외시켜주었다는 점에서 이는 더욱 잘 드러난다.

10) C. J. Haas, "Imperial Religious Policy and Valerian's Persecution of the Church, A.D. 257-260" *Church History* 52-2(1983), pp. 133-144. 데키우스가 혹독한 기독교 박해 정책을 펼쳤던 것에 대해서 교회사가 에우세비우스는 데키우스의 전임 황제 (또 데키우스가 죽였던) 필립푸스가 기독교에 온화한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오늘날 상당수 학자들은 이를 근거 없는 것으로 보지만, 당시의 관행을 생각해보면 꼭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제위 권력 투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들이 의지하는 일종의 '수호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독교의 세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던 시기에는 이교신과 기독교의 갈등으로 드러나기 쉬웠는데, 312년 콘스탄티누스의 밀비우스 전투에서의 일화가 그 예이다. 이는 이후의 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의 갈등에서도 이어지는데, 리키니우스는 원래 기독교에 우호적이었지만, 콘스탄티누스와 싸우면서는 이교신 유피테르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기독교도를 박해하기에 이른다. 특히 율리아누스 황제와 콘스탄티우스 2세의 갈등에서 이는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율리아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표방하는 콘스탄티우스 2세에 대항하여 이교신의 도움을 청하여 자신이 승리하였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은 4세기 말까지 이어졌다.

11) eg, D.S. Potter, *The Roman Empire at Bay AD 180-395*, London: Routledge, 2004. 241.

명의 사제들, 아프리카의 주교 테오게네스, 아가피우스 세쿤디우스 등이 있었으며, 데키우스 황제 때 박해를 피했던 카르타고의 주교 키프리아누스 역시 258년 발렌티우스 황제 박해 때 순교하였다[12].

전염병이 유행하던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거나 혹은 향락주의에 빠지기 쉬웠을 것으로 보인다. 데키우스 황제 당시의 전염병이 초래한 상황에 대해서 폰티우스는 사람들이 '죽게 될 사람을 내버리면 죽음 자체를 보낼 수 있는 것처럼 친구들까지 매정하게 내쳤다. 도시에는 시체가 즐비하였으며, 아무로 자신의 잔인한 이익 외에는 돌아보지 않았다. 아무도 남이 자신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다.[13] 비슷한 시기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디오니시우스 역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병의 증상이 시작된 사람들을 내쫓았으며 사랑하는 친구들도 버렸다. 심지어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을 길에 내다버렸고 사체를 쓰레기처럼 대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죽음을 피하려 온갖 발버둥을 쳤지만 죽음의 전염병을 피하기는 어려웠다'고 증언하고 있다[14]

이러한 상황은 아마도 기원전 5세기 아테네에서 창궐하였던 전염병이 초래한 상황과도 그리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전염병이 유행하자 의사들도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인간의 어떤 다른 기술도 소용이 없었다. 신전이나 신탁에 호소도 하였으나 이 역시 아무런 소용이 없었으므로 속수무책으로 환난을 당하는 수밖에 없었다. 말로 묘사하기 힘든 이 가혹한 전염병은 체력이 강한 자든 약한 자든 모두의 목숨을 앗아갔다. 가장 큰 고통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곧 절망에 빠져 자신을 포기하고 낙담하는 것이다. 이런 점이 큰 파국을 초래했다. 겁이 나서 병자에게 접근하지 않으므로 사람들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죽어갔고, 시체가 이곳저곳에 널려있었으며 성소에도 죽은 시신들로 가득 찼다. 그 결과 신성과 세속적 경건함이 다 무시당했다. 또 더 큰 다른 혼란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삶과 부가 다 일시적인 것이라 생각하고 즉흥적 환락, 순간의 쾌락을 좋고 유용한 것으로 여겼다는 점이다'[15]고 직접 눈으로 목격하였던 바를 증언하였다.

2. 기독교인들의 대처

---

12) Cyprianus, *Epistulae* 76-81; 디오니시오스 주교의 편지는 Eusebius, *Historia Ecclesiastica*, 7.10-12; Augustinus, *Sermo* 273.7.

13) Pontius Carthage, *Vita et Passio Cypriani*, 9.

14) Eusebius, *Historia Ecclesiastica*, 7.22

15) Thucydides, *Historiai*, 2. 47 ff.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염병이 유행하면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서 친한 이들의 시신도 방치하든가 순간의 향락에 빠져들었다면, 이들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던 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바로 기독교도들이었다.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디오니시우스는 '대부분의 우리 형제들은 자신을 아끼지 않는 사랑과 헌신으로 서로를 돕고, 두려워하지 않고 병자를 돌보았으며, 그러다가 자신도 질병에 감염되면 이 세상을 기쁘게 떠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여 건강하게 해 준 사람 가운데 다수가 죽었습니다. 장로, 집사, 평신도를 막론하고 우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잃어갔습니다. 강한 믿음과 경건에서 나온 이런 형태의 죽음은 순교에 못지않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성도의 눈과 입을 감기고 다물게 하고 어깨에 업고 시신을 옮긴 다음에는 안아서 정성을 다해서 씻기고 수의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곧 자기 자신도 같은 의식을 제공받게 되었습니다'고 전한다[16].

카르타고의 폰티우스 역시 전염병이 유행하면서 병자는 친구에게도 버림을 받았으며 아무도 자신의 잔인한 이익 외에는 돌아보지 않았던 상황이지만, 기독교도들만큼은 사랑을 베풀었음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카르타고의 주교 키프리아누스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독려하면서 스스로 사랑을 베푸는 일에 뛰어들었다. 그는 원수들까지도 사랑하여 자신을 박해한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겼다고 전한다[17]. 키프리아누스는 병자들은 물론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이들까지 보살피고 죽게 되면 장례의식까지 치루어 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선행은 다음 세기에까지도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4세기 전염병이 유행하던 상황에서도 '기독교인들의 열심과 경건함은 모든 사람들에게 명백히 드러났다. 오직 그들만이 이처럼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인간성과 동정심을 행동으로 나타냈기 때문이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종일 죽은 자들을 돌보고 장례를 치렀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시체들이 무수했기 때문이다. 또 어떤 기독교인들은 굶주려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기도 했다. 이 사실은 널리 알려졌고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리고 이 사실로 인해 이 사람들만이 진정 경건한 사람이며,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되었다'[18]는 것이다. 이러한 선행은 유대인들과도 달랐다. 유대인들도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자선이 주로 자신들 공동체 안에 머물렀던 데 비해서, 기독교인들의

16) Eusebius, *Historia Ecclesiastica*, 7.22

17) Pontius Carthage, *Vita et Passio Cypriani*, 9

18) Eusebius, *Historia Ecclesiastica*, 9.8

선행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모르는 이웃에게까지 퍼져갔기 때문이었다. 기독교를 혐오하면서 그 전파를 막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던 4세기 중엽의 황제 율리아누스로서도 이런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던 형편이었다. 그는 <이교도 사제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불경건한 갈릴리인들(즉 기독교도들)'은 인간애를 실천하면서 자신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은 물론 이교도들 가운데 불쌍한 자들도 돕는다고 하면서 기독교도들의 이웃에 대한 사랑과 봉사를 본받아야 할 것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19]. 또 기독교의 전파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기독교인의 장례 의식을 낮에 치르지 못하도록 하는 칙령까지 내릴 정도였다.

이는 후기 문헌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구호 집단들인 파라발라니(parabalani, παραβαλανεῖς, 혹은 παράβολοι), 필로킨디노이 (philokindynoi, φιλοκίνδυνοι), 필로포노이(philoponoi, φιλόπονοι), 스푸다이오이(spoudaioi, σπουδαῖοι)라 불리는 사람들의 원형이 되었을 것이다. 여기서 파라발라니[20]나 필로킨디노이 등은 문자 그대로 '위험을 무릎 쓰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며, 필로포노이[21]는 '고된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 스푸다이오이[22]는 '열심인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이 모든 단어들은 병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거나 고된 일을 감내하거나, 그런 고난과 고통을 사랑하기까지 하며 성실과 열정을 다해서 돌보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특기할 사실은 오늘날 개념의 병원이 탄생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스 로마의 대다수의 이교도들은 병들게 되면 특히 의료의 신으로 알려진 아스클레피우스나 아폴론 신 등에게 의지하였으며, 특히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이 일종의 병원 역할을 하였다[23].

---

19) Julianus, "Fragment of a Letter to a Priest", *The Works of the Emperor Julian*, II, trans. W. C. Wright, New York: The MacMillan Co., 1913. 337.

20) 파라볼라니는 파라발로(παραβάλλω)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그 뜻은 '위험을 무릅쓰다'라는 뜻이다. 기독교인들은 이를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위험을 무릎 쓰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문헌에 처음 나타난 것은 에우세비오스의 *Theophany*(325년)에서이지만 그 이전부터 이어져왔을 것이다. A. Philipsborn는 parabalani가 오늘날 앰뷸런스대원, 혹은 의료보조인과 가까웠을 것으로 보았다. 이 단어는 테오도시우스 법전 및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에도 나오는데 '병든 자를 도우는 이들'이라 쓰였다. Theodosian code, 16.2.43. 이들은 목욕장 시중인, 간호인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G. W. Bowersock, "Parabalani : A Terrorist Charity in Late Antiquity", 45-54. https://journals.openedition.org/anabases/1061

21) 필로포노이에 대해서는 <세베루스의 생애>를 쓴 스가랴(Zacharias)가 언급한다. 이 글의 시리아 버전에서 ܦܝܠܘܦܘܢܘܢ (φιλόπονοι)라 표기되어 있다. 여기서 이들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로 나온다. 소프로니우스(Sophronius)는 이들은 파라볼라니처럼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해 바친 이들로 말하였다.

22) σπουδαῖοί(ܨܘܪܦܐ ܨܘܪܦܐ)는 '함께 하다', '붙다'라는 동사에서 나왔다. 이는 신약성서에 나오는 κολλώμενοι라는 단어, 선에 붙어있어라(<로마서> 12. 9의 κολλώμενοι τῷ ἀγαθῷ) 혹은 주께 붙어있으라(고린도 전서. 6. 17의 κολλώμενος τῷ Κυρίῳ)와 통하는 단어로 보인다.

그런데 이들 신전은 일시적 치료를 위한 시설에 가까웠고, 중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곳은 아니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정성껏 간호하면서 돌보다가 죽으면 그 시신까지 정성껏 매장해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수고는 당시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H. Sigerist는 이와 관련하여 기독교는 아픈 이들을 향한 사회적 태도에 가장 혁명적이며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왔다고 고찰한 바 있다.[24] P. Brown도 기독교인들이 가난한 자와 병자를 함께 돌보는 시설(poorhouse-cum-hospital)은 고대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던 새로운 시설이었다고 보았다[25]. 즉 기독교인들이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돌보기 위해서 만든 시설인 Ksenodocheia(ξενοδοχεῖα, 나그네를 위한 집), Ptocheia(πτωχεῖα, 가난한 자들을 위한 집), Nosokomeia(νοσοκομεῖα, 아픈 자들을 위한 집)이 바로 오늘날 개념의 병원이 된 것으로 보인다. T. Miller가 기독교가 (동로마 제국이 자랑하던) 병원 시설을 창조하였다고 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였을 것이다.[26]

III. 전염병에 대처한 기독교인들의 원동력

4세기의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들은 특히 세 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이들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고통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timor mortis)이라고 하였다[27]. 전염병은 이 모든 두려움이 수반되는 상황을 만들어내기 일쑤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 그리고 특히 전염병이라는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는 죽음에 대한 기독교 도들의 독특한 시각, 부활과 관련한 신앙심 때문이었을 것이다.

---

23) 병자들은 아스클레피스 신전에 머물면서 오늘날로 치면 수면치료, 음악 치료, 연극 치료 등을 통해서, 특히 꿈에서 아스클레피우스 신이 나타나서 처방전을 알려주는 수면 치료를 통해서 병이 나았다고 전한다. 일부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에는 병이 나은 이들이 바친 많은 봉헌물이 오늘날까지 전한다.

24) https://christianhistoryinstitute.org/magazine/article/new-era-in-roman-healthcare

25) P. Brown, *Poverty and Leadership in the Later Roman Empire*, London: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2002, 34.

26) T. S. Miller, *The Birth of the Hospital in the Byzantine Empir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5, 50.

27) Augustinus, *Soliloquia* 1.9. 16.

1. 사랑과 기쁨

기독교가 출현하기 전까지, 그리스 로마인들의 전통적 종교에서 찾아보기 힘든 덕목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었다. 무엇보다도 신들과 인간의 관계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었다. 물론 신들도 각자의 총애하는 인간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버리거나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아폴론신은 헥토르의 죽음을 두고 볼 수밖에 없었으며, 아프로디테 여신은 총애하던 파리스의 죽음을, 아르테미스 여신은 자신을 지극으로 섬기는 히폴리토스의 죽음을 어찌할 수 없었다. 일종의 수호 정령 '게니우스' 역시 위기의 순간에 자신이 수호하던 사람을 떠나는 것이 일상이었다. 이는 인간의 편에서도 마찬가지로 신들을 사랑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우스운 것으로 비추어졌다[28]. 또한 로마 시대 지식인을 사로잡았던 스토아 철학의 최상 가치는 아파테이아, 즉 감정에서 초월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스토아 철학에서 동정이나 긍휼함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에서 나온 것이므로 피해야할 것, '영혼의 질병(morbos animi)'으로까지 간주되기도 하였다[29].

이와 대조적으로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바로 사랑과 긍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며, 인간 편으로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계명이자 덕목이었던 것이다. 초대 교부 테르툴리아누스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가'라는 말들을 이웃에게 듣는다고 말한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은 서로 미움으로 가득한데 기독교도들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또 서로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구나'라는 말을 듣고 있으면서, 기독교도들은 '마음에서 우러난 헌금을 하고 이를 먹고 마시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특히 고아와 가난한 노인,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죄목으로 온갖 어려움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힌 이들을 돕는 사람들', 혹은 '장례를 치루어 주는 사람들'로 정의된다고 말한다[30].

이그나티우스 역시 '기독교도의 시작은 믿음이고 그 끝은 사랑'이라고 하였으며[31],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랑은 영혼의 손'이라고 아름답게 표현하였다[32]. 아리스티데스는 기독교인들은 하인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기독교인이 될 것을 권유하고 그렇게 되면 형제라 부르고

---

28) *Magna Moralia* 1208 B 30.

29) 긍휼함은 두려움과 욕망과 더불어서 영혼의 질병에 속한다.

30) Tertullianus, *Apologia* 39.

31) <에페소스로 보내는 편지> 14

32) Augustinus, *Sermo* 125

서로 사랑하며, 나그네를 진정한 형제로 여기고 기뻐하면서 집으로 데려다 돌보는데, 육신적 혈연이 아니라 영과 하나님 안에서 형제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가난한 사람이 그들 가운데 있는데 그들도 넉넉하지 않다면 이틀이나 사흘간 금식하여 음식을 마련하여 주는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들인 것이다[33]. 이러한 예를 다 들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특기할 것은 이 모든 것이 큰 기쁨 가운데 행해졌다는 사실이었다. 초대 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인데, <사도행전>에 '기쁨이 충만하였다'는 언급이 곳곳에 나오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키프리아누스 역병이 유행하던 당시의 디오니시우스 주교는 기독교도들은 여러 고난을 당했지만, 기뻐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평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전염병의 공격도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수업'에 불과하였다는 것이다.

2. 부활에 대한 믿음

앞에서는 여타 종교에서나 철학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덕목으로 초대 기독교인들의 사랑, 긍휼, 기쁨이 두드러졌다는 점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특히 전염병의 유행으로 인한 특별한 상황, 임박한 '죽음'이라는 상황에서 당시 전통종교들이 거의 제공하지 못한, 그러면서 놀라운 힘을 발휘한 기독교의 부활 신앙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34]. <사도행전> 및 초대 순교자들 관련 문헌에서 두드러지는 점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및 영광스런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 죽음보다는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에 대한 확신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35]. 다른 한편 부활 사상은 당시 로마의 보통 지성인들에게 가장 이해하기 힘든 개념에 속하였다. <기독교 반박문>을 썼던 이교 사상가 켈수스가 기독교인들의 어리석음은 부활에 대한 믿음에서 극도에 달한다고 비판하였던 것이 그 좋은 예이다. 현제로 소문났던 마르쿠스

---

33) M.L. Laistner, *Christianity and Pagan Cultur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67, 26-27; M. Hengel, *Property and Riches in the Early Church*,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4, 42-43

34) 로마인들 가운데서도 분명 죽음 앞에 용맹스러웠던 이들도 있었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들과 기독교인의 죽음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De Civitate Dei* 5.13~14. 로마의 영웅들이 '인간의 칭송에 대한 사랑(amor humanae laudis) 때문에 죽음을 택했다면, 기독교인들은 '진리에 대한 사랑'(amor veritatis)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였다.

35) 이와 더불어서 흥미로운 점은 당시 기독교인들은 성령의 경험이 보다 일상적인 것, 중요한 신앙의 토대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것은 <사도행전>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다.

아우렐리우스 황제도 기독교도들의 어리석음은 부활과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에서 극치에 달한다고 여겼다.

그러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없앤다면 모든 기독교 교리는 흔들거릴 것'이라 하였던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은 이를 잘 보여준다.[36]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인들은 지상의 삶을 사랑하면서도 그것에 얽매이지 않았는데, 이들은 사라져가는 현세의 삶이 그토록 사랑스러운 것이라면 멸망하지 않을 저 삶은 얼마나 더 사랑스러울지 생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37]. 유스티누스는 기독교인들은 죽기를 기뻐하는데 그 이유는 생명의 물을 주시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때문이라고 선언한다[38]. 2세기경 리옹에서 순교했던 기독교도들에게 삶이란 것은 죽음이며, 죽음은 승리이며, 영원한 삶을 의미하였다[39]. 역시 순교로 삶을 마감했던 폴리카르포스는 '나로 하여금 순교자의 반열,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게 하시어 내 몸과 영혼이 성령의 썩지 않는 축복 속에서 영생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4.15)'고 기도하였다. 즉 이들은 죽음과 고통에 직면하였으면서도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 나라,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초월할 수 있었던 것이다[40]. 이그나티우스는 '만약 내가 고난당한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인이 될 것이며, 그 안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여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이제 속박 가운데 있는 나로서는 아무것도 욕망하지 않을 것을 배웁니다... 나는 썩어질 양식이나 이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구합니다. 그리고 썩지 아니하는 사랑의 음료인 그리스도 피를 구합니다'는 편지를 보냈다[41]. 기원전 2세기 초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기독교도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이들을 부유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지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죽음을 선고받지만 생명으로 부활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아리스티데스는 '믿는 누군가가 죽으면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가 마치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처럼 그의 주검을 뒤따른다.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어릴 때 죽으면

---

36) Augustinus, *Sermo*, 361.2; 또 육체는 멸망하지 않을 것으로 살아날 것이며, 흠, 부족함, 죽음 없이 새로 살아날 것이다. *Sermo*, 240.3

37) Augustinus, *Sermo*, 344.3.

38) Justinus, *Apologia*, 114.4 J.E. Morgan-Wynne, "The Holy Spirit and Christian Experience in Justin Martyr" *Vigiliae Christianae* 38(1984), 173.

39) Tatianus, Minucius Felix, Thophilos, Athenagoras 등 많은 이들이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하였다.

40) 기독교의 부활에 대한 교리는 너무나 확실하여서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은 심지어 모든 이단들까지도 동의하였다고 오리게네스는 말한다. Origenes, *Commentarium in Johannem*, GCS4, 10. 37

41) Ignatius, <에베소 3서> 4.

죄 없이 이 세상을 지나가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힘껏 찬양한다'고 고백한다. 테르툴리아누스 역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믿듯이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 부활이 있으므로 죽음에서 슬퍼할 필요가 없다. 죽음은 단지 하나의 새로운 출발일 뿐이다. 너보다 앞서간 사람에 대해서는 슬퍼할 것이 아니며, 아무도 죽음으로 슬퍼해서는 안되는데, 삶에는 고통과 위험이 있지만 죽음 안에서는 평화와 부활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은 미래의 약속된 보상과 비교할 수 없다'고 강변한바 있었다[42]. 이렇게 부활에 대한 믿음은, 당시 이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온갖 불이해나 조롱에도 불구하고 초대 교회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었다. 초대 교회와 오늘날 기독교를 비교한다고 하였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이야말로 부활에 대한 강조점이 아닐까 싶을 정도이다.

3. 키프리아누스의 죽음과 부활관

이처럼 초대 교회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던 부활에 대한 믿음을 여기서는 3세기 전염병의 유행과 박해의 한가운데 살았던 키프리아누스의 글 <죽음에 대해서De Mortalitate>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키프리아누스가 전염병 확산의 상황에서 쓴 이 글에서는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도들이 가져야할 마음가짐과 태도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그는 '이제 전염병이 있다. 전염병은 믿는 자, 안 믿는 자들을 가리지 않고 모두 공격하여 모두 죽어간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달라진다. 우리 몸은 첫 번째 탄생으로 인한 같은 육체를 가지므로 이 세상에 있는 한 육체적으로 동등하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달라진다. 영혼에 있어서 갈라지기 때문인데,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멸망할 것이 불멸함을 입을 것이며,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실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43].

키프리아누스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말을 인용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권면한다. 예수님도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해야할 것이라 말씀하신바 있었고, 바울도 죽은 자들에 대해서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 것을 권면하였다(데살로니가 전서 4. 13). 특히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요한복음 11. 25절)고 말씀하였던 바.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덫, 육체의 죄와 악과 고통, 악마의 계교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부르심으로 구원의

---

42) Tertullianus, *De Patientia*. 9.2-3; *Ad Quirinum*, 3. 58; 3.17

43) Cyprianus, *De Mortalitate* 8

기쁨, 영원한 삶으로 가는 것이다[44].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지 않으면 영원한 삶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동하는 통로인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 사람들, 하늘의 처소에 자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신성한 것에 이미 소망을 두고 있으므로 이 세상의 폭풍이나 돌풍, 어떤 흔들림에도 떨지 말아야한다. 주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으며, 오히려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고 하셨다. 이 세상이 사라짐과 함께 삶의 보상, 영원한 구원의 기쁨, 잃어버린 낙원을 소유함 등이 이제 오고 있다. 이제 하늘의 일들과 위대한 것들과 영원한 것들이 지상, 작은 일, 없어질 것들을 대신하여 자리를 차지할 것이므로 걱정과 외로움이 있을 여지가 없는 것이다.[45] 아기로 오셨던 구세주의 탄생을 보고 평화롭게 세상을 떠난 시몬처럼 우리도 죽고 난 다음 영생을, 우리 집과 영원한 안전을 얻게 될 것이다.[46]

그러면서 그는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사후의 삶은 명백하게 달라질 것임을 명백하게 말한다. 소망과 믿음이 없는 자들은 사후 처별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두려워하고 슬퍼하면서 죽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들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 둘째 죽음으로 옮겨질 사람. 이 세상을 떠나면서 영원히 타는 불길로 영벌에 들어갈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것처럼 검은 옷을 입고 슬퍼하는 것은 믿음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가기를 원치 않는 것이 아닌가하면서 죽기를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한다.[47] 그는 오히려 빠른 죽음으로써 영원한 기쁨을 주실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어서 빨리 가자. 모두가 기다리는 곳으로'라 권면한다[48]. 실제로 키프리아누스는 그 자신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을 '여행자'처럼, '항해자'처럼, '손님'처럼, '이방인'처럼 살면서, 데키우스 황제 당시는 (이곳에서 박해를 하면 저곳으로 피하라라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박해를 피해서 피신도 하였다가, 발레리아누스 황제 때는 영원한 삶으로 가는 통로인 순교로 삶을 마쳤다.

---

44) *De Mortalitate* 7; 21.

45) *De Mortalitate* 2

46) *De Mortalitate* 3

47) *De Mortalitate*, 7, 15.

48) *De Mortalitate*, 20, 26, passim.

IV. 나가는 말

초대 교회에서 뚜렷하게 보이는 사랑과 부활에 대한 굳건한 믿음은 기독교도들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에 초연한 태도를 가지게 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특히 전염병의 대유행 시기에 최악의 상황에서 더욱 빛났으며 사람들을 감동케 하여 교회가 성장해나가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의 역동적 모습은 4세기 말 경이 되면 원래의 생명력을 상실하고 급속하게 변질되어 갔다. 가장 단적인 예로서는 앞에서 전염병 등의 상황에서 죽음을 무릎쓰고 봉사했던 기독교도들을 지칭하던 파라볼라니parabolani를 들 수 있다. 이들은 5세기 초에는 마치 광신적 폭도처럼 변하게 되어서 이교도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동을 서슴없이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변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령의 음성을 따라오려 애쓰던 교회가 이즈음 점차 거대한 이익, 권력 집단으로 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우연한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49]. 전염병이 유행하고 교회가 비난받는 요즘, 교회의 외형이 커지면서 교회 안에서조차 온갖 비리가 난무하는 요즘,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들부터 초대 교회의 영성, 특히 사랑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되살려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그러한 초월적 사랑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

49) 이 시기의 교부 히에로니무스는 '교회당 벽, 천장, 기둥머리는 금으로 빛나고 있다. 이에 비해 그리스도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 '믿음으로 가르쳐야 할 성직자들이 붉은 망토를 걸친 뚱뚱한 여인들의 이마에 키스를 하고 돈을 취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성직자들은 손가락에는 번쩍이는 반지들을 끼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외모, 의복, 구두, 향수 외 다른 것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타락해가던 교회와 성직자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히에로니무스보다 조금 앞서 살았던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는 콘스탄티노플의 대감독직을 그만두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그 사임 이유를 밝혔다 '나는 재산이 너무 많아 이를 어디다 써야할지 모르는 사람들과 경쟁해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또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의 빵과 필수품들을 너무 배가 불러서 강단에서 트림을 할 정도로 소비해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나는 멋진 말과 근사한 마차를 몰고 우리를 위해 길을 만드는 사람들 앞을 지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러한 약탈들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그 동안의 잘못을 버리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감독으로 선출할 것을 권면하였다. 요한 크리소스토무스 역시 그레고리우스 같은 입장을 취했다는 이유로 콘스탄티노플에서 추방당했다. 자신의 교구는 비워둔 채로 큰 돈을 벌기 위해 대도시를 순회하며 설교하는 것을 탐탁치않게 여기고 검소하게 살면서 감독에게 주어지는 환대를 거부하였던 것이 일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혹평과 비난을 샀던 것이다.

<주요 참고문헌>

사료:

Augustinus, *Sermo*
Cyprianus, *De Mortalitate*
Eusebius, *Historia Ecclesiastica*
Livius, *ab Urbe Condita*
Pontius Carthage, *Vita et Passio Cypriani*
Tertullianus, *De Patientia*
Thucydides, *Historiai*

2차 사료:

P. Brown, *Poverty and Leadership in the Later Roman Empire*, London: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2002.

C. J. Haas, "Imperial Religious Policy and Valerian's Persecution of the Church, A.D. 257-260" *Church History* 52-2(1983)

M.L. Laistner, *Christianity and Pagan Cultur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67, 26-27; M. Hengel, *Property and Riches in the Early Church*,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4.

T. S. Miller, *The Birth of the Hospital in the Byzantine Empir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5.

J.E. Morgan-Wynne, "The Holy Spirit and Christian Experience in Justin Martyr," *Vigiliae Christianae* 38(1984)

D.S. Potter, *The Roman Empire at Bay AD 180-395*, London: Routledge, 2004.

논 찬 문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표논문 제목	**전염병과 초대교회:** 대처 모습과 그 동인	**발표자**	최혜영
		논찬자 (소속)	최용준 (한동대)

이번에 최혜영 교수님의 논문에 대해 논찬하게 됨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최 교수님의 주제는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이 시기에 매우 시의적절하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고대 로마시대에 창궐했던 여러 전염병들 중 3세기 중엽에 전 로마 제국을 휩쓴 소위 '키프리아누스 질병'을 예로 들면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에 대처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당시 데키우스 황제는 이 전염병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면서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전 제국적으로 극심한 박해를 가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러한 전염병은 당시 기독교인들의 전염병에 대한 대처 방식과 죽음에 대한 태도를 통해 오히려 기독교의 확산을 도왔다고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

가령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염병이 유행하자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친한 이들의 시신도 방치하든가, 아니면 순간의 향락주의에 빠져들었지만 기독교도들은 이들과 정반대로 자신을 아끼지 않는 사랑과 헌신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병자를 돌보다가 자신도 질병에 감염되면 이 세상을 기쁘게 떠났다고 한다. 이처럼 그들은 병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고된 일을 감내할 뿐만 아니라 고통을 사랑하며, 성실과 열정을 다해서 돌보았고 그 결과 오늘날 개념의 병원도 탄생시켰다는 것이다.

나아가 최 교수는 전염병의 창궐이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당시 기독교도들이 죽음을 초월하여 선행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 가운데 가장 중요하였던 것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더불어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다고 본다. 특히 초대 교회에서 뚜렷하게 보이는 부활신앙은 기독교도들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든 죽음에 초연한 태도를 가지게 하였고 이러한 모습은 특히 전염병의 대유행 시기에 더욱 빛났으며 사람들을 감동케 하여 교회가 성장해나가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필자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비전 또한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계 21:1-4에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 결과 더 이상 눈물, 아픔, 죽음이 없다고 증언한다. 이러한 세계관과 확신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병자들을 돌볼 수 있는 강력한 동기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주었을 것이다.

지난 2월 대구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폭발했을 때 필자는 부친상을 당하여 대구 성서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장례예배를 드렸다. 그 때 계명대 동산병원은 신축한지 얼마 되지 않아 최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며 자원하여 대구의 코로나 환자들을 돌보는 지정병원이 되었다. 재정적 어려움과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질문한 기자들에게 병원장은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오셔서 병원을 세우고 복음을 전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그 빚을 조금이나마 갚고자 한다고 답변했다. 이 답변은 지금도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였다고 필자는 확신한다.